

동향과 분석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이종규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양문수

2015년 북한식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2015년 북한 곡물생산 동향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5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머리말

2015년 북한경제는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개선의 3대축으로 설정한 농축수산부문과 10월의 당창건 기념일의 성과물로 설정된 수력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및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대형 건설사업 및 이와 관련된 기계부문 등에서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용품과 식품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과 관련된 식품가공 및 일부 섬유·의류 부문에도 투자와 생산에서 제한적인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력발전의 가동률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석탄 공급 증가 등으로 석탄광업의 생산활동은 전년에 이어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타 광업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4년부터 지속된 심각한 가뭄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보도가 『노동신문』 등의 보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발전 성과에 대한 보도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금속 및 화학 공업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공식매체들에서 이들 산업의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가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지하자원을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었으며, 기계류, 섬유류, 화학제품 등 자본재의 대중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I. 전력 및 광업

1. 전력

2014년 내내 가뭄이 지속된 상황에서 2015년 6월까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2015년 상반기까지 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소의 가동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량부족으로 2014년에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줄어들었지만, 2015년에는 2014년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도 수력발전부문의 성과 보도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미 있는 성과 보도는 원산청년발전소가 연간 전력생산 계획을 13% 초과 달성했다는 중앙방송의 보도가 유일하다¹⁾2). 반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전용 석탄 공급 증가 등으로 어느 정도 발전량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비의 낙후가 심한 북한 화력발전소의 사정상 석탄 공급의 증가가 바로 발전량의 증가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창화력발전소,³⁾ 순천화력발전소,⁴⁾ 청천강화력발전소⁵⁾ 등에서 전력생산의 성과가 있다고 보도되었다. 각지의 중소형 발전소의 성과에 대해서도 보도되고 있으나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화력발전이 수력발전의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2015년 북한의 발전량은 2014년에 이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발전부문에 대한 투자는 최근 수년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목표로 백두산영웅청년1, 2호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외에도 예성강3호발전소, 어랑천5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금야강수력발전소, 남강수력발전소 등 중규모 수력발전소와 다수의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 중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창건 기념일 이전에 완공되어 조업하였으며,⁶⁾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11월 중순에 10기의 발전소가 준공되었다.⁷⁾ 이는 2012년 희천1, 2호 발전소의 완공 이후의 최대의 발전소 완공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발전소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상반기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 조업하게 되면 수력발전부문에서 어느 정도 발전량 증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1) 중앙방송(2015. 12. 25).

2) 중앙통신은 10월 22일 서두수발전소가 '매일 전력생산 계획 20% 초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수력발전소의 성과보도가 드물지만 10월 이후에 나온 것은 북한 지역의 강수량이 가을 이후 다소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노동신문』(2015. 1. 5).

4) 『노동신문』(2015. 4. 2).

5) 『노동신문』(2015. 3. 5).

6) 중앙통신(2015. 10. 4).

7) 중앙방송(2015. 11. 18).

있다. 이 외에 화평1호발전소,⁸⁾ 초산청년2호발전소,⁹⁾ 룡상청년발전소¹⁰⁾ 등 중소형 발전소가 준공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의 7차 당대회까지 완공을 목표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3호기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움직임의 하나는 태양열, 지열, 풍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확충 노력과 각 분야에서의 적용 움직임이 2015년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은 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 공급 확대만으로는 전력 공급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열에너지로 운행되는 여객선, 버스 등을 개발하고, 선전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공기관에 태양열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인다거나, 자체적으로 풍력발전기나 지열 생산설비를 생산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한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정책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양묘장, 양어장 등 소규모 산업시설에서도 전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노동신문』 등에 다수 보고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 제고 움직임이 북한경제 전반의 에너지 공급량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광업

광업 부문에서는 석탄광업은 전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타 부문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석탄광업은 전반적으로 생산이 적지 않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2015년 11월까지의 대중 석탄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1,786만톤을 기록하였다.¹¹⁾ 이와 함께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가동률 저하를 화력발전을 통하여 상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수용 석탄의 공급도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2014년 9월에서 2015년 8월 기간 동안에 화력발전소용 석탄의 생산이 34% 늘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¹²⁾ 2015년 7월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 생산량이 70만톤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¹³⁾ 따라서 2015년 북한의 석탄광업은 상당한 공급

8) 중앙방송(2015. 2. 28).

9) 중앙방송(2015. 8. 14).

10) 중앙통신, 중앙방송(2015. 9. 1).

11) 중국 해관통계

12) 『노동신문』(2015. 12. 23).

13) 『노동신문』(2015. 7. 22).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매체들도 광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보도를 줄이는 가운데에서도 석탄부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성과 보도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 생산이 29%와 22% 증가하였다고 보도¹⁴⁾하는 등 대부분의 탄광연합기업소와 사리원탄광 등 많은 탄광에서 생산계획을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는 연간 계획을 12월 초에 조기 수행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¹⁵⁾

한편, 석탄광업 부문에서의 투자에 관해서는 벨트컨베이어 설치를 통한 생산능력 확충 노력이 많은 탄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직동청년탄광, 덕천탄광, 봉천탄광, 제남탄광 등 다수의 탄광에서 벨트컨베이어 수송선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제남탄광 등에서는 공사가 완공되었다.

석탄 이외의 광업 부문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률광산, 재령광산, 은흥광산 등 철광석을 중심으로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가 전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석탄과 달리 해당 광종 전체의 성과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보도되지 않았다. 한편, 석탄을 제외한 지하자원의 대중수출은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도 크게 줄었다. 11월까지 철광석의 대중수출이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47%와 68% 줄어들었으며, 여타 금속광물의 대중수출도 크게 줄었다. 광산물 전체로는 같은 기간에 전년의 13억 9,700만달러에서 11억 9,700만 달러로 14.3% 줄어들었는데, 약 6.3% 줄어든 석탄보다는 철광석 등 금속광물의 수출 감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광산물의 대중수출 감소가 주로 중국의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수부문과 관련 없이 생산이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산광산에서 3호대형원추형 파쇄장과 폐석광사, 장거리벨트컨베이어 ‘나’선이 조업하였으며,¹⁶⁾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증산천 미광침전지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¹⁷⁾ 이 밖에 광천광산 흑연생산 공정 조업이나 은률광산 박토처리능력 확충사업 등 다수 개별 광산의 설비확충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광업 부문은 철광 등이 생산이 정체되거나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석탄광업부문에 생산이 증가하여 소폭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노동신문』(2015. 7. 22).
15) 『노동신문』(2015. 12. 4).
16) 『노동신문』(2015. 4. 10).
17) 『노동신문』(2015. 10. 6).

III. 제조업

1. 중화학공업

2015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선행부문과 기초공업의 정상화를 강조하였다. 전력, 수송, 석탄과 함께 금속 및 화학 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에 이들 소재공업의 성과를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금속부문은 생산성과 보도가 거의 전무하다. 업종 전반의 성과 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책제철소나 천리마제강 등 핵심 설비의 성과에 대한 보도도 전혀 없다. 청진강재공장이 1/4분기 계획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거의 유일한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이다.¹⁸⁾ 생산성과 보도가 바로 해당 부문의 생산동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4대 선행부문으로 강조되고 있는 금속공업의 성과보도가 적다는 것은 이 부문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핵심 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철부문에 석탄가스화를 통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는 투자가 지속되었다.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병용광로가 개건되었으며,¹⁹⁾ 천리마제강소에 고온공기연소기술에 기반한 새 압연선재가열로가 설치되었다.²⁰⁾ 그리고 천리마제강소 산하 보산제철소에서 제4호 회전로가 건설되었으며,²¹⁾ 김책제철소에서 열간압연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냉간압연공정의 대보수를 추진하였다.²²⁾ 이 밖에 부령 합금철공장의 새로운 합금의 개발소식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비철금속부문에서는 단천제련소에서 유리섬유 및 수지액 생산공정과 폴리 유산철 생산공정이 조업하였다.²³⁾

기계공업(전기전자, 수송기계 포함)은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생산성과 보도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업종이다. 이는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이나 과학기술전당 등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설비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축수산부문에 대한 자원분배 증가에 따라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나 어선, 그리고 수산물 가공시설 등의 생산활동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다른 업종과 달리 기계공업은 공업 전반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신문』은

18) 『노동신문』(2015. 3. 22).

19) 『노동신문』(2015. 10. 11).

20) 『노동신문』(2015. 10. 15).

21) 『노동신문』(2015. 9. 19).

22) 『노동신문』([2015. 8. 19]; [2015. 9. 23]).

23) 『노동신문』(2015. 2. 13); 중앙통신(2015. 10. 27).

기계공업이 2015년 9월 30일까지 연간 경제계획을 15%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 중 발전설비를 31% 초과 달성한 것을 비롯하여 전동기, 변압기, 감속기, 전선 생산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개별 기업으로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평양326 전선공장, 경성애자공장, 문철발브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금성 트랙토르 공장 등의 성과가 뛰어나다고 보도하였다.²⁴⁾ 이들은 대부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의 건설에 설비를 공급한 기업들이다. 이 밖에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 지하전동차 생산, 종합봉사선 무두봉호의 건조 등의 성과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²⁵⁾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계공업부문은 10월의 당창건 기념일을 맞춘 발전소 등 대형 건설사업, 그리고 농축수산부문에 대한 지원, 북한의 과학기술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중 기계류 수입 감소는 기계부문의 성과가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11월까지 기계류(HS 84)는 수입이 18.2% 감소하였으며, 전자제품(HS 85)과 수송기계(HS 87)의 수입도 각각 15.5%와 5.2%가 줄어들었다. 북한이 10월의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계류의 수입 감소가 일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핵심 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의 자본재 공급이 줄어들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속과 함께 주요한 소재부문인 화학공업도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가 드물다. 화학공업의 생산성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제약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반면, 화학공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핵심 설비인 2·8비날론연합기업소나 남흥청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의 생산성과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일단락된 것을 반영하듯 주요 설비에 대한 투자동향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비중이 큰 설비로는 신의주화학연합기업소의 아크릴칠 감생산공정의 건설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새로운 혼합비료생산공정의 건설 정도이다.²⁶⁾ 그 밖에는 소규모 제약공장의 설비확충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북한이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부자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공업에서의 성과 보도가 줄어든 것은 다소 의아한 점이다. 다만, 학생용품과 관련하여

24) 『노동신문』(2015. 10. 27).

25) 『노동신문』의 기사 중 생산성과에 대한 기사의 수를 보면, 2015년 10월까지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과 관련 기사는 약 103건이며, 이 중 중화학 공업은 총 62건이다. 기계공업(전자, 수송기계 포함)의 생산성과 보도는 40건으로 전체 중화학 공업 생산성과 보도의 65%에 달한다. 2013년과 2014년 같은 기간 중 기계공업의 생산성과 보도는 각각 24건과 19건이었으며, 중화학 공업 전체 생산성과 기사에서의 비중은 41%와 31%였다.

26) 『노동신문』([2015. 10. 11], [2015. 3. 18]).

섬유 설비의 확충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자재를 내부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정한 생산활동은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비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북한이 농업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비료수입의 감소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대형 화학설비의 비료생산 증가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화학공업의 생산이 전년 수준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5년에는 무기화합물, 플라스틱, 고무류의 수입이 각각 12.9%와 11.9% 줄어드는 등 화학제품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의 석탄화학산업이 중간재 공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화학제품의 수입 감소는 이를 사용하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확대에 따라 건재산업의 생산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상원세멘트, 순천세멘트, 고무산세멘트, 전천세멘트 등 주요 시멘트 공장의 성과가 다수 보도되었다.²⁷⁾ 주요 투자 동향으로는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내화물분공장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활용한 무연탄가스화 공정 설치를 들 수 있다.²⁸⁾

2. 경공업

경공업 부문은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정책방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신년사에서 경공업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서 학생용품과 어린이용 식품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분야의 생산성과 투자동향이 눈에 띈다.

생산성과는 식품가공과 섬유·의류가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되었다.²⁹⁾ 식료일용공업성 전반의 생산성과 보도가 거의 모든 분기, 월, 연간 단위로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³⁰⁾ 그리고 평양식료연합기업소, 평양곡산공장, 평양맥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등 주요 식품가공공장의 성과 역시 비중 있게 보도되었으며, 우시군 등 지방 식품공장의 성과도 자주 보도되었다. 반면, 섬유·의류의 경우 주로 연초에 학생복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다. 그리고 원산구두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등 일부 기업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섬유·의류 부문의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대중 섬유류의 수출입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1월까지 수입은 인조 섬유(HS 51), 인조 단섬유(HS 52)가 각각 37.8%,

27) 『노동신문』(2015. 4. 2); [2015. 6. 29]; [2015. 9. 30]; [2015. 11. 4]).

28) 『노동신문』(2015. 11. 19).

29) 2015년 10월까지 『노동신문』의 경공업 부문의 구체적인 생산성과 보도 중 식품가공과 섬유·의류는 공히 20건에 달하였다.

30) 예를 들어 중앙방송은 6월 24일 식료일용공업성이 6월 및 상반기 공업총생산계획을 각각 16%, 18%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연간 경제계획을 중앙공업 부문 15%, 지방공업 부문이 10% 초과달성했다고 보도하였다.

28% 감소하고, 편직의류(HS 61)도 15.2% 줄어드는 등 거의 모든 품목에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수출은 편직의류(HS 61), 의류(HS 62) 모두 각각 40.2%와 0.1%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용 티셔츠는 92.6%나 증가한 7,600만달러를 기록, 최대 의류 수출품이 되었다.

북한이 수출 및 내수용 의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섬유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섬유류 수입 감소와 의류 수출 증가는 섬유·의류 분야에서 수출과 내수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내수용 의류 생산은 줄어들었거나 최소한 이를 위한 섬유의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의류, 특히 임가공을 통한 의류 수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류 부문에서 수출과 내수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의류 수출은 대체로 하반기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11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2016년에도 이어질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자부문에서는 식품가공부문 및 섬유의류부문이 공히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되고 있다. 평양어린이식품공장의 현대화나 평양메기공장의 신설 등이 매우 비중 높게 보도되는 등 식품가공부문의 투자성고가 보도되었으며, 섬유의류부문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샤스 천 공정 신설 등 설비확충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IV. 건설

2015년 북한 산업 중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부문은 농축수산업과 함께 건설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형 건설사업에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³¹⁾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³²⁾는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력발전소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완공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백두산영웅청년 1, 2호 발전소는 당창건기념일 이전에 완공되었으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당창건 기념일

31) 이 발전소는 당초 백두산선군발전소로 불리다가 2015년 준공을 앞두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32)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회천발전소에 이어 청천강에 건설된다고 해서 회천2단계발전소로 불리기도 한다. 청천강을 따라 10개의 계단식 발전소가 건설되는데, 회천 1, 2호 발전소에 이어 회천 3호에서 회천 12호까지 명명되었다. 각 발전소는 중간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0개 계단식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도 회천 1, 2호 발전소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인 11월에 준공되었다. 북한이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실시할 것을 선포한 이후에 백두산영웅청년 3호 발전소의 건설이 다시 국가적으로 주요한 건설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의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관련이 있는 건설사업이다. 두 건설사업은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하여 준공되었다.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집중과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축섬에 건설되었으며, 미래과학자거리는 과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주거단지 건설사업인데, 당초 김책공대교원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사업은 1, 2단계로 추진되었는데, 1단계는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2단계는 2015년에 시작되었다. 53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수천 세대의 주택과 150여 동의 공공건물, 창광상점 등 상업유통 시설 등이 포함되는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북부 철길공사나 평양 순안공항 신역사 및 원산 갈마공항 등 수송부문의 토목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함경남도 물길건설이나 용매도, 홍건도 간석지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도 주요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사업과 함께 국가 주도의 건설사업이 다수 추진되었다. 우선 나진선봉 지대의 수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2,000여 세대의 주택이 단기간에 건설되었다.³³⁾ 그리고 창천지구남새전문협동조합의 건설도 중앙정부 주도로 1년여 만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³⁴⁾. 아울러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애민주의, 교육, 청년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도단위에서 육아원, 애육원이 건설되거나 건설되고 있으며,³⁵⁾ 학교 등 교육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지고 있다.³⁶⁾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사업 등 주민 위락시설의 확충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건설사업도 다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 사업으로 삼지연군의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으며,³⁷⁾ 남포, 사리원시 등 각 도의 단장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산업설비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건설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축산기지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지구 등판 건설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지의 과수농장이나 축산농장 등의 신설과 확장 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산부문에서 적지 않은 건설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어장 건설이나 수산기지의 확충, 수산물 가공 시설의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반면, 제조업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나 설비의

33)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300여 세대, 청계동, 유현동, 관곡동 구 등에 500여 세대가 건축되었다고 한다(『노동신문』[2015. 10. 8]).
 34) 창천지구남새전문협동조합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의 신선채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교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인데, 북한은 2015년에 이 협동조합에 국가주도로 비닐하우스 단지, 주택, 공공건물 등을 건설하였으며,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35)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은 2014년에 건설되었으며, 원산 육아원 및 애육원은 2015년 6월에 준공되었다.
 36) 『노동신문』은 2015년 8월 30일, “근 700개의 대학, 학교 건물이 일떠서거나 증축되어 새로 생겨난 교실만 해도 수천개이며, 새로 제작된 책걸상은 16만 3,000여 조, 1만 수천 개의 실험실습실들이 개건되고 새로 마련된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와 기구들은 무려 수십만점”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37) 삼지연 혁명전적지 답사 숙영지 등 정치적 건물을 비롯하여 매개봉 국수집, 청량음료공장, 중소형 발전소 등 군내 산업시설 등 군차원의 종합적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노동신문』[2015. 8. 5]).

확충과 관련된 건설활동은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만으로 확인할 경우 줄어들거나 전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 사업으로 삼지연군의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남포, 사리원시 등 각 도의 단장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건설부문은 2014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건설의 단위 규모가 커졌으며,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건설사업의 수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V. 평가 및 전망

2015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분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2014년부터 지속된 심각한 가뭄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북한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수출 감소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속되었다. 2015년에는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기계류, 섬유류, 화학제품 등 거의 모든 자본재의 수입이 상당폭 감소하였다. 북한이 설비와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입 감소는 북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비록 단기적이지만 확장적인 요소도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10월의 당창건 70주년이라는 대형 이벤트는 건설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 생산활동을 단기적으로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발전소나 과학기술전당 및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대형 건설사업을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하여 완료하기 위하여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설 및 기계 등의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생산활동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농축수산물 인민생활 개선의 3대축으로 설정하고, 학생용품과 어린이용 식품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도 수산업이나 식품가공업 등에서 투자와 생산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시장경제 친화적인 정책기조와 그에 따른 시장경제 활동의 증가라는 성장촉진 요인이 아직 그 잠재력이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농축수산물 제외한 실물부문의 성장률은 전년도 수준이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물가와 환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10월의 당창건 70주년 이벤트는 경제 전반에 큰 후유증을 남기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북한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외무역의 감소세는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가 2016년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6년 초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은 개선되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전반적인 대중무역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의류 수출이 증가한 점은 고무적인데,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는 수력발전의 회복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2015년 가을 이후 다소 많은 비가 내렸으며,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거나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2016년에는 36년만에 노동당 7차 대회가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정치적 이벤트에 맞추어서 경제성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벌써 백두산영웅 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이 독려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당대회에 맞추어서 건설을 독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당대회까지 몇몇 사업이 아닌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속도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집권 이후의 경제운용 방식이나 2015년의 사례를 보면 경제의 안정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성과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을 통하여 북한경제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축수산업과 과학기술에 자원배분을 증가시키고, 대형 설비투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김정은식 경제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경제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거나 북한경제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북한경제의 성과는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나 북중무역의 회복 여부, 기후조건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등 대외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확대를 통한 제한적인 경제성과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